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정치학 교수

최근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해서 '미래통합당' (통합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가 뿔뿔이 흩어진 지 3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 한국당의 김형오 공관위원장 체제로 이어받기로 했다.

이는 일단 야권 정계 개편의 가장 큰 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총선을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동안 파편화된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설 연휴 직전에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월 18일~21일)에 따르면, '선거 전에 보수 야당 간 통합

통합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 (50.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 (37.5%)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통합 필요성에 각각 59.9%와 55.3%가 동의했다. 통합당은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집을 짓고 개혁 보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통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통합 세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 의원의 김형오 위원장이 '갈수록 이상해진다'라며 총선 공천 작업에서 새보수당 인사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출했다. 여하튼 유승민 의원의 '전략적 두문불출'이 길어지면 그만큼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통합의 화용정점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김형오 위원장 간의 3자 회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천을 포함해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통합의 강을 건널 수 있다.

단언컨대 흩어졌던 보수 세력이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정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표출된 국민들의 이해를 잘 집약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추천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당명과는 달리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거나, 통합에 앞장서지 않고 분열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내 113석의 통합당 출범으로 이

번 총선은 '1여다야' 구도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 간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은 본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통합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보수 세력 결집과 중도표심 확장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갤럽의 2월 둘째 주 조사(11-13일)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 (43%)보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45%)이 조금 앞섰다. 한 달 전 조사(1월 7-9일)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무려 12% 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엔 역전됐다. 민주당의 잇단 악재에 불만이 쌓인 중도층에서도 지원론 (39%)보다 견제론 (50%)이 훨씬 많아졌다. 보수 통합으로 지금까지 진보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겨우 평평해졌다. 선거는 통상 새로운 경쟁이다. 어느 정당이 더 큰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변화가 최상의 전략이다.

종교칼럼

희망을 만들어 내는 관점



황성호
신부·광주기독교총연합회 부국장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특히 우리 지역에서 첫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 왜 동남아 여행을 가서는 참!' '도대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뭐하고 있을까?' 라면서 다른 사람 탓을 했는지? 아니면 '빨리 쾌유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해야지'라며 함께하려는 마음이었는지 묻고 싶다. 각자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건이나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의 논리에 의해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는지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는 당시 사셨던 그 시대의 기록 권에게 표적이 되셨다. 예수가 반대 받는

표적이 되신 이유는 당시 기록권들의 논리와 삶에 반기를 드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놀라울 때가 많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계명과 예수께서 가르치는 계명의 근본이 같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율법학자들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고, 예수도 또한 말씀과 행동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와 율법학자들이 같은 율법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다. 예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셨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사람이 지켜야 하는 계명에 중심을 두었다. 그렇다 보니 계명에 중심을 두는 이들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는 사람들을 계명의 주체이며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엄연히 다른 이 두 관점,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쉽게 말해 예수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랑을 살리는 관점이며, 예수가 사셨던 시대의 기록권이 가졌

던 관점은 사람을 계명의 노예, 곧 사람을 죽이는 관점이었던 것이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코로나19이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각자가 물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관점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관점인지? 바이러스 발생 이후 아직까지 집에도 가지 않고 확산을 막고 있는 이들, 우한 교민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고 격리 지역까지 운전자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여 이득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갑자기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모두가 예수처럼 희망을 만들어 내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社說

코로나 확산 지역사회 감염 촘촘한 대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본격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바다. 특히 16일 첫 지역 감염 환자(29번)가 나온 후 18일 감염원 미상의 두 번째 환자(31번)가 발생했으며 31번 환자가 다녀간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다행히 광주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다. 광주시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엇그제 16번 확진 환자와 딸인 18번 확진 환자가 퇴원했다. 앞서 16번 환자의 친오빠인 22번 확진 환자로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광주시는 이들과 접촉해 광주21세기병원과 소망학교에 머물던 환자와 보호자 60명에 대한 격리도 해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0일 현재)가 하루 만에 무려 30명이나 늘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소 12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차단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판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 시도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정부의 '봉쇄 전략'에 누수가 발생한 만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방역망을 짜야 할 것이다. 시는 앞서 당국의 환자 관리 방침을 교조적으로 따르다 확진 환자를 뒤늦게 발견해 가족 간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이 많은 지역인 만큼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속속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살뜰히 보듬으면서도 지역사회 방역 체계에 빈틈이 없게 촘촘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펭귄마을 '자동차 몸살' 해결 묘안 없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는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남긴 건축물과 이장우 기옥 및 최효승 가옥으로 대표되는 한옥 등이 온전히 남아 있다. 또한 미술관과 카페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적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양림동만의 고유한 공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펭귄마을은 독특하다. 주민들이 동네 골목을 아끼자기하게 꾸며 놓았는데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 평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만 2만 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 일대 골목들은 워낙 좁아 관광객들은 도보로 걸어서 다녀야만 한다.

한데 최근 펭귄마을을 일원인 관광객들이 주차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 양림동 내 경영 주차장은 115면에 불과해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 도로변에 주차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구청

은 엄격한 단속을 할 경우 매출이 감소된다는 상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기 어려워 고정식 CCTV 단속 유에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되자 펭귄마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증가하며 도보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양림동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상상하며 찾아온 도보 관광객들이 '자동차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양림동의 고유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과거에 사직도서관 앞 세종로는 도로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홀췌세 주차제'로 바뀐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양림동이 제 색깔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남구청과 경찰 그리고 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는 생각한다. 고로 플레이한다'. 제목이 데카르트를 연상시키는 이 책은 이탈리아 축구선수 안드레아 피롤로의 자서전이다. 날카로운 킥, 왕성한 활동량, 안정적인 볼 배급, 정교한 톱패스, 터프한 수비, 강력한 슈팅. 이 모든 능력을 갖춰 '그라운드 철학자'로 불리는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피롤로에 가장 근접한 한국 선수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아마 기성용일 것이다. 광주 출신인 그는 2001년 순천중 앙초등학교 때 차범근축구

최근 2020 프로축구 스토티브리가 기성용의 복귀설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결국 무산됐다. K리그 흥행을 이끌 빅카드였으나 FC서울과 전북현대 사이의 연봉 협상 등으로 잡음이 일더니 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스타들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이면 고향 팬들과 호흡하면서 지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일까? 마라도나 등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앞두고 고향 팀에 복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구초심

야구에서는 박찬호가 지난 2012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18년 만에 고향 연세대학교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대형 유망주'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광양제철중 1학년 때 호주로 축구 유학을 떠났고, 4년 뒤 돌아와서는 광주 금호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FC서울에 입단했다. 2008년 만 19세의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20세부터 대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A매치 110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었고 월드컵에도 세 번 출전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신화'를 이뤘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야구에서는 박찬호가 지난 2012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18년 만에 고향 연세대학교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대형 유망주'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광양제철중 1학년 때 호주로 축구 유학을 떠났고, 4년 뒤 돌아와서는 광주 금호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FC서울에 입단했다. 2008년 만 19세의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20세부터 대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A매치 110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었고 월드컵에도 세 번 출전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신화'를 이뤘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기고

스마트 수산 인재를 길러야 한다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장

체 어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면 양식 어업(1조 7320억 원, 66%)과 어선 어업(9440억 원, 33%)은 이러한 노동력 및 생산 효율성 문제에 가장 심각한 노출되어 있어 획기적인 수산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역 사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수산업의 당면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어촌, 관련 산업계 및 대학은 현 정부가 마련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호응해 지역의 선도할 특화 기술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서둘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신안군에 유치해 기존의 노동 집약적 방식에서 탈피한 고부가가치의 미래 첨단 스마트 양식 도입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지역 선도형 양식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 원의 규모로 2022년까지 ICT 기반 스마트 양식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최첨단 전진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스마트 양식 원천 기술의 확보라는 전남도의 구체적인 지역 특색화 계

획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4차 산업 혁명 관련 융합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수산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는 현재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여수캠퍼스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중 두 개의 대형 연구 과제를 유치한데 이어 '빅 데이터 수산 자원 관리 협동과정'과 '스마트 아쿠아팜'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산·학·연 수요를 반영한 석·박사급의 융복합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전 단계인 학부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첨단 학과 신설을 통한 학부 교육 과정 및 교육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학부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전주기적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미래 수산업의 발전 추동 및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로부터 양성된 인력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래 수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인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의 신설 시 수행될 주요 과업은 첫째,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기술과

신학문을 접목한 수해양 융합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ICT, 양식, 해양, 수산학을 아우르는 융합 지식과 기술을 지닌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에 필요한 TAC 기반 자원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넷째, AI,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특화된 미래 지향적 수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 정책 및 지역 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취업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신설되어야만 우리는 지역 특색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타 지역 우수 학생의 여수 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및 여수캠퍼스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융합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수산 전문 인력의 배출을 통해 지역 내 신산업의 유치와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창·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한 수산자원 관리 인력의 산·학·연·정 분야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